

투데이 칼럼

김민석 체제 민주,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경선 시작 후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하던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 당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경선에서 승기를 잡은 후 정청래 후보와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치열했던 경선의 승부가 끝난 뒤 김 대표가 내놓은 수락 연설은 단순한 당선 소감이 아니었다. 자신의 지난 40년 정치 인생을 돌아보는 회고와 함께 민주당의 변화,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당내 통합,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에 대한 구상이 담겼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감사’와 ‘경순’이었다. 김 대표는 당원과 국민, 하늘에 감사하고 경쟁했던 정청래·송영길 후보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치열한 경쟁 뒤 승자가 상대를 끌어안은 것은 분열된 당을 하나로 묶어야 할 새 대표에게 의미 있는 출발이다. 김 대표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을 지켜온 힘으로 ‘경순·경순·경순’의 3경을 꼽았다.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그의 고백 역시 집권 여당 대표가 가져야 할 자세를 함축한다. 국민의 선택으로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이제 정권의 성공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내놓은 ‘민주당 ABC 플랜’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보여준다. A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생활정치를 뜻하는 Affordability, B는 크고 넓은 덧셈정치, 확장정치 즉 외연을 넓히는 Broad, C는 유능한 정치, 유능한 민생 중심,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Competence다.

국민의 삶을 우선하고, 더 넓게 국민과 함께하며, 실제 성과를 내는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집권 여당이라는 점에서 민생과 유능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당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지만, 집권당은 국정과 책임을 져야 한다. 물가와 민생이 안정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변화가 있어야 ABC 플랜도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당정 관계도 중요한 시험대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면서도 토론하고 직언하는 ‘창조적 수평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집권당이 정부를 무조건 추종해서도 안 되고, 국정운영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서도 안 된다.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힘을 보태되 민심을 전달하고 잘못된 부분에는 과감하게 직언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민주당 당내 통합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전당대회는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어느 때보다 당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김

대표가 경쟁했던 후보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힌 것은 경선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가 강조한 ‘덧셈 정치’는 당내 통합에서 더욱 중요하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정치가 아니라 경쟁 후보들의 정책과 인재, 지지자들을 민주당의 자산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주당 북당 문제 역시 새 지도부가 당의 통합과 포용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

김 대표는 18년의 광야 생활을 견뎌온 자신의 정치 역정을 돌아보며 부모와 오랜 친구들을 떠올리고 울었다고 고백했다.

이번 당대표 당선이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긴 정치 여정의 결실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은 목표의 끝이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을 지기 위한 출발점이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화려한 언어를 내놓더라도 국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치적

수사에 머물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역사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수락 연설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제 집권에 성공한 정당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김 대표가 말한 ‘황금시대’ 역시 정치권만의 황금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낙오와 소외, 차별 없이 함께 가겠다는 약속이 국민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김민석 대표의 성공 여부는 새 가치로 평가될 것이다.

첫째, 치열했던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을 얼마나 신속하게 통합하느냐이다.

둘째, 이재명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어내느냐이다.

셋째, 민생과 유능함을 앞세운 ABC 플랜을 실제 정책과 성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이다.

김 대표의 당 대표 수락 연설은 분명한 약속을 던졌다. 민주당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제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후보와의 치열한 경선의 승자를 넘어 민주당 전체의 대표가 되어 민주당을 말하는 정당에서 ‘일하는 정당’, 나아가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전북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만약 이미 도박에 노출되었거나 현악을 받고 있다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경찰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김동현 전주경찰서 심해파출소 경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기간 : 2026년 5월 18일~8월 31일
경찰청 112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 : 1336

사설

신철희 사진전 ‘빛과 그리다’

신철희 사진전 ‘빛과 그리다’가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전북예술회관 1층 기스락 2실에서 열렸다. 사람들은 묻는다.

사진인데 왜 그림처럼 보이게 찍나요? 이것은 사진입니까? 그림입니까? 엄연한 사진이다. 사진(Photography)은 그리스어(語)의 Photo ‘빛’과 Graphos ‘그리다’의 합성어다.

대학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한 신철희(1971년 전북 남원생)는 대학 시절 사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유판인더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군(軍)입대 후에는 정훈병과 사진병으로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6개월 간 파병 복무도 했다. 이후 전주에서 30년 간 베르베르 스튜디오를 지켜온 상업사진작가다.

작가는 사진과 회화(그림)의 경계를 허물며, 2022년부터 연(連)발을 주제로 카메라를 벗 삼아 ‘그리는 작업’에 전념했다.

처음 카메라를 손에 쥐었던 설렘으로부터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번 사진전에 담긴 이미자들은 사진과 미술이라는 두 영역의 경계에서 탄생한 시각적 콜라보레이션이다.

사진이 단순히 ‘찍힌 것’에 머물지 않고 ‘그려진 것’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묘한 이질감과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나타나 아름다운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

이 작업을 통해 독자들이 사진이라는 매체의 무한한 확장성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간여 있던 이미자가 독자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미술작품으로 다시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색깔로 만난 사람들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11월 4일까지 ‘색깔로 만난 사람들’ 전시가 열린다. 색깔로 만난 사람들(회장 유승욱)은 2003년에 만들어졌으며, 올해로 창립 17년을 맞이했다.

김민자 작가는 호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및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원 공예학과 섬유미술전공 졸업했다. 4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초대전, 단체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사)창작미술 가람섬유조형회, 한지조형작가협회, 원섬유조형회, 색깔로 만난 사람들 회원 및 전국충청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용석 작가는 5회의 개인전과 건지전, 서양화전, 북창전, 색깔로 만난 사람들전을 비롯해 다수의 기획·초대전, 단체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희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전북 여류화가회, 아트위크회, 진안 향토미술작가회, 색깔로 만난 사람들,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혜연 작가는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과 및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을 전공했다. 12회의 개인전 및 다수의 기획·초대전을 가졌으며, 현재는 한국미협, 아트위크회, 전업작가회, 전북 구상작가회, 색깔로 만난 사람들, 전주 누드 크로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미옥 작가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2회의 개인전 및 2017 녹색종이전, 테라스토리전, 전북미술교원 등 다수의 단체전에서 활동하고 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